

“尹대통령 광주·전남 공약 이행 정부 적극 나서라”

●국가균형위 지역공약 토론회

市, AI 영재고·군공항 이전 등 국비 지원 건의 道, 첨단의료복합단지·무안공항 활성화 강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균형위)는 13일 광주·전남도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지역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정현 균형위 전략기획위원장 주재로 광주·전남도·균형위 관계자들과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전문가 주제발표 및 제언, 자유토론, 종합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훈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공약 추진 현황 보고’에서 “지난 4월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6개 사업, 453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광주·전남에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국토부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AI중심도시 광주를 위한 2단계 사업 기획 등 1단계와 2단계 사업 병행 추진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AI 영재고 설립 등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을 건의했다.

또 시민 숙원사업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통과 및 대통령 임기 내 국가 주도 이전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조기 착공 ▲광주 복합쇼핑몰이 문화관광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통·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과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 주요 공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

항만 조성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푸드바이오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등 7대 분야 15개 정책 과제다.

이정현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는 지역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여해 광주, 전남, 종합토론의 3개 세션으로 구성, 타운홀미팅으로 진행됐다.

전남 세션에선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이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솔라시도 재생에너지 산단 및 발전단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기영 순천대 교수는 인공지능(AI) 광주와 백신 투구 전남이 함께하는 전국 유일 광역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견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 항공기 정비(MRO), 물류, 동남아 노선 특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현 여수관광항만공사 부사장은 ‘자동화’를 넘어 ‘지능화’된 미래항만, 광양항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밖에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친환경 케이(K)-푸드 수출 플랫폼,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어 종합토론회에선 김태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 연구센터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등 전문가가 참여해 광주·전남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언·토론했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토론회가 끝난 뒤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공약은 중앙 차원의 이행 점검 체계가 없어 전반적으로 중앙부처가 소극적인 상황이다. 중앙부처의 관심과 지역공약 이행



광주공동체 한마당 행사 13일 오후 동구 금남로지하상가 2공구 권역 일원에서 열린 ‘2022 광주공동체 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이 각 자치구 마을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를 제고를 위한 균형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광주시 주요 공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진정한 지방시

대의 시작은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전남공약의 충실한 이행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토론회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광주·전남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이를 충실히 실행하겠다”며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박선경기자

금지사, 화재·AI 특단 대책 지시

도민 생명·재산 보호 강조...기회발전특구 등 선제 대응 주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주택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화재 피해나 AI를 막는 것은 불가항력이 아니므로, 이에 철저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가뭄이 지속되면서 건조하기 때문에 주택 화재와 산불이 잦고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 속에서 소방당국이 고생하고 있지만 인명 피해 만큼은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발생 시 화재 발생부터 진화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재정기자

고병원성 AI와 관련, “타 지역보다 전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디엔가 구멍이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 바닥에 까는 왕겨나 계열사 직원 왕래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많았던 사례를 잘 살펴 방역선상에서 놓친 경우가 없는지, 역학조사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원에 비해 부족한 수의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문제도 하루빨리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설치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획기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남반 등을 구성, 에너지 분야 특화나 국제교 설립 등 구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내년 정부 공도가 나기 전에 마련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재정기자

전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참여하세요”

30일까지 500곳 자립형 공동체 육성

전남도는 13일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립형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3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마을을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과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각각 추진된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은 소멸해가는 마을에 주민 스스로 마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자립형 마을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2023년 400개 안팎의 공동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공도는 공기빛깔사업의 경우 씨앗·새싹·열매 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사업비는 씨앗 500만원, 새싹 1천만원, 열매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0~150개 지원을 통해 500개 돌봄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한다. 매년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해 사업 종료 후 사업평가를 통해 최대 5회 지원한다.

공적 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주도로 서로 돌보며 건강을 챙기는 ‘마을돌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돌봄 유형은 일반돌봄, 아동, 노인, 의료연계, 기타돌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상, 나이, 소득에 제한 없는 돌봄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에 활력을 줌으로써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지역 5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공동체 사업 계획 및 사업 수행 역량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시·군 공동체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지침 및 행정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13일 전남도 주관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시·군 자체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의 씨앗단계는 시·군에서 심사·선정하고, 새싹·열매단계와 행복드림 돌봄공동체는 도에서 심사를 거친 후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 후 도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컨설팅 및 회계교육 이수 후 2~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남도 사회경제과(061-286-5042) 또는 전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061-982-1069), 시·군 마을공동체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정기자

당신에게 힘이 되는 금융!!

지구의 내일도
무궁 무진!
MG MG

ESG경영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금융





이사장 박영대

전국새마을금고 현황

(2022년 6월말 기준)

- 총 자산 260조원
- 거래고객수 2,180만명
- 전국 영업점 3,218개

목포중앙새마을금고

본점 : 244-1144 목포시 백년대로 294
유달지점 : 285-1144 연동지점 : 276-7183